

## 서양 남성의 나이트클로즈에 관한 고찰

金 珠 爰

경상대학교 의류학과 조교수

### A Study on the Western Men's Nightclothes

Ju-Ae K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study examined of historical changes of western men's nightclothes from middle ages to the modern ages and analyzed functions and features of men's nightclothes. This study presented meaning and importance of men's nightclothes. The method of study researched the many literatures and internet sources.

Until medieval age, men slept naked or in a day-shirt. In the 16th century, a nightshirt was worn in bed. A night-cap was usual, in rather more elaborate form, also worn by day in the house, and even outdoors. In the 17th century, nightshirt was elaborated with ruffles and lace. The nightshirt of 18th century, resembled the day-shirt except that it was slightly longer and fuller in cut.

The turn of 19th century, men weared nightshirt with a high folding collar, one button and night-cap of jellybag shape. In the early 19th century, nightshirt had a plain turned-down collar, buttoned at the neck. A night-cap with colored tassel was usual. The middle of 19th century, a nightgown was reaching to the ankle.

Pyjamas, in the 1890s, were steadily replacing the nightshirt, before long pyjamas had become generally accepted in place of the nightshirt. A pyjamas which preseverved his male dignity by giving him trousers. Man's ingenuity also modified his nightclothes so that these took on sexual characteristic.

In 20th century, the fabrics had become lighter in weight, and the choice of materials wider. By 1930s, nightclothes had become the man's most colorful garment.

## I. 서 론

일반적으로 인간은 낮과 밤의 주기에 따라 활동과 휴식을 반복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게 된다. 휴식의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면이다. 수면은 하루의 활동을 마치고 내일의 활동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하루의 1/3 정도에 해당되며, 이러한 수면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잠 자리에서 착용되는 모든 피복류물 본 연구에서는 나이트클로즈라 간주하였다.

현대에 이르러 의복은 기능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되며 나이트클로즈도 다양한 의복 종류의 하나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보아 나이트클로즈에 관한 연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나이트클로즈에 관한 관심이 적고 자료가 빈약한 탓으로 나이트클로즈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남성 속옷 중 극히 일부 분으로 취급되었으며, 시기도 근세에 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sup>1)</sup>.

1990년대에 들어 모드의 흐름은 쾌적함을 추구하는 캐주얼의 방향으로 전환되어 파자마 팬츠와 스트레치 팬츠는 실크 셔츠와 함께 신체에 여유를 가지면서 편하고 가벼운 움직임으로서 애호받게 되었다. 또한 여가 시간을 소중히 여겨 편안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패션이 창출되고 있다<sup>2)</sup>.

이러한 상황에서 파자마를 포함한 나이트클로즈에 관한 역사적 고찰은 의의가 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서양 남성의 나이트클로즈가 중세부터 현대까지 변천해 온 과정을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의 수집 외에 국·내외의 관련 문헌을 살펴봄으로써 나이트클로즈에 관한 의의 및 중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근세는 세기별로 분류하였으며 1790년대는 시기적으로 18세기 말에 속하나 복식의 특성상 19세기 흐름의 시작이므로 근대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근대 및 현대는 특징적인 변화에 따라 세분화하여 고찰하였다.

## II. 나이트클로즈의 정의 및 기능

나이트클로즈(nightclothes)는 나이트셔츠(nightshirt), 나이트 캡(night cap), 나이트가운(nightgown) 외에 파자마(pyjamas, pajamas; 美) 등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보통 잠옷류를 일컫는다. 나이트클로즈를 의미하는 용어로는 nightwear, nightdress, night attire, bedwear, sleeping garment, sleeping attire<sup>3)</sup> 외에도 일본어로는 寝間着, 寝衣類 등으로 불리

어진다. 본래 이것은 수면시의 의복으로 속옷의 분야라고도 말하지만 실내 착용의 흔쾌적 요소도 많다<sup>4)</sup>. 즉 나이트클로즈는 순수한 의미의 잠옷으로 취침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말하며, 밤의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하루의 피로를 풀고 휴식을 취할 때 입는 실내복을 말한다.

잠옷은 오랜 시간 신체에 걸치는 옷이므로 충분한 안면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즉 안락한 취침을 통하여 인간의 안락성을 추구하는 실용적인 측면의 일차적 기능을 갖는다. 실용적인 면에서 갖는 중요성으로는 착용감 및 흡습성이 좋아야 하며 세탁에 강하면서 튼튼하고 질겨야 한다. 또한 입고 벗기에 편리해야 하며 착용시 인체에 무리를 주지 않는 여유 있는 옷이라야 한다.

이차적 기능으로는 인간의 정신적 안락감을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며, 밤의 아늑하고 우아한 무드를 조성하게 하여 개인의 신비감 및 개성의 연출에 대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삼차적 기능은 현대에 있어 소비자의 욕구가 다변화되어 있으므로 잠옷의 순수한 용도뿐 아니라 실내에서의 활동복, 집 인근의 외출복, 조깅 등의 산책복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웨어블 추구, 이에 맞추어 잠옷의 기능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 목적으로 디자인된 옷을 라운지 웨어(lounge wear)라 하며, 이에 는 라운지 드레스(lounge dress)와 라운지 파자마(lounge pajama) 등이 있다.

## III. 나이트클로즈의 특징과 변천

### 1. 중 세

중세에 남자와 여자는 일반적으로 잠옷을 착용하지 않았으나 해산이나 공식 방문과 같은 특정한 경우에는 예외였다. 예를 들면 Lancelot du Lac의 "The fourteen century romance"<sup>5)</sup>에 의

1) 金珠愛, 韓國服飾學會, 服飾, 40호, 1998, pp.171-180

金珠愛, 服飾文化學會, 服飾文化研究, 6권 3호, 1998, pp.217-227.

金珠愛, 服飾文化學會, 服飾文化研究, 6권 4호, 1998, pp.203-212.

2) wysiwyg: //33/http://business.fortunecity.com/nicholas/550/adj.htm

3) Nunn, J., *Fashion in Costume 1200-1980*, Herbert, 1990, p.176.

4) 日本纖維機械學會 纖維工學刊行委員會編, 纖維工學(VI) 最終纖維製品の製法と性能, 日本纖維機械學會, 1981, p.119.

5) Cunnington, W. & P.,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1992, p.23.



<그림 1> Shirt, early 15C  
(Men in Black, p.49)

하면 잠자리에서 발가벗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언급되고 있으나 Chaucer<sup>6)</sup>의 "The Marchantes Tale"에서 남자는 잠자리에서 셔츠(그림 1)와 나이트 캡(nightcap) 차림을 나타내었고, "Joinville는 학질에 걸렸을 때 튜닉을 입은 채로 잠들었다"고 언급되어 있다<sup>7)</sup>.

## 2. 16세기

잠자리에서 착용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나이트캡은 16세기 이전까지는 좀처럼 착용되지 않았으므로<sup>8)</sup> 16세기에 이르기까지 남성은 나체 혹은 데이셔츠(day shirt)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16세기에는 질적인 면에서 다양한 종류의 나이트셔츠가 잠자리에서 착용되었으며 귀족들은 자수를 놓은 셔츠나 정교한 나이트셔츠를 착용하였다<sup>9)</sup>. 나이트셔츠는 앞트임과 낮고 둥근



<그림 2> Nightshirt, 16C  
(Medicine, p.140)

목둘레선으로 데이셔츠와 같은 형태였으나(그림 2) 길이에 있어서 데이셔츠보다 약간 길었다. 현존하는 스투 셔츠(Sture shirt)<sup>10)</sup> 중에는 칼라와 커프스 대신에 목둘레선이 낮고, 넓은 손목밴드로 구성된 셔츠는 나이트셔츠로도 사용되었다<sup>11)</sup>. 이 시기에 착용된 나이트 캡은 흰색 외에도 보온을 고려하여 붉은 색상이 이용되었다. 또한 통풍을 위하여 상부에 구멍이 있는 나이트 캡이 권장되어 위생적인 측면이 고려되었다. 자수가 놓여진 나이트 캡은 주간에 실내 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착용되었으나 잠자리에서는 착용되지 않았다<sup>12)</sup>. 상류층의 나이트 캡은 검은 벨벳에 자수 장식을 한 것이었으나 하류층은 조약하게 끈 실로 된 나이트 캡을 사용하였으며 헨리 8세는 보석으로 장식된 나이트 캡을 착용하였다. 이로써 나이트 캡의 재료 및 장식이 계층에 의하여 구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13)</sup>. 14세기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착용된 나이트 캡은 뒤로 밀착되게 뒤집혀진 브림(brim)을 가진 스컬 캡(skull-cap)<sup>14)</sup> 형태였다.

6) 14세기 영국 시인, 캔터베리의 순교자, 사실주의.

7) Cunnington, W. & P., 앞의 책, 1992, p.23.

8) Yarwood, D.,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Bonanza, 1986, p.299.

9) Cunnington & Beard, *A Dictionary of English Costume*, A & C Black, 1976, p.146.

10) Cunnington, W. & P., 앞의 책, 1992, p.261.

Sture는 스웨덴의 귀족으로 1567년 사망, 스웨덴의 Uppsala 대성당에 4개의 스투 셔츠 보존.

11) Cunnington, W. & P., 앞의 책, 1992, p.261.

12) Cumming, V., 廣瀬尚美 譯, *Exploring Costume History 1500-1900*, 關西衣生活研究會, 1991, p.24.

13) Davenport, M., *The Book of Costume*, Volume I, II, Crown Pub, 1948, p. 434.

14) 17세기 부터 남성이 착용한 둥근 꼭대기와 머리부분이 밀착된 평평한 캡이고 나이트 캡으로서 이용되었다. 19세기에 스모킹 캡으로 이용되었다. p.196.

16세기 부터 자수가 놓여진 나이트 캡이 일반적으로 되며 가발을 대신하여 편안하게 실내에서 착용되었다. 16세기 후기에는 침실에서 나이트 슬리퍼가 착용되어 그 후에도 계속 착용되었다(그림 3, 4)<sup>15)</sup>.

16세기부터 이용된 나이트카운은 길고 풍성한 코트형태로 중앙 앞트임과 긴 소매로 구성되며 보통 나이트 캡과 함께 사용되었다. 나이트카운은 보온의 목적으로 안을 대거나 털로서 장식되었다<sup>16)</sup>.

### 3. 17세기

잠자리에서 남녀 모두 나이트셔츠를 착용하였으며(그림 3) 실내복으로 이용할 때에는 나이트셔츠 위에 다른 의복을 착용하였다<sup>17)</sup>. 바로크 시대에 길쭉에 적용되었던 레이스, 라플 등의 장식적 표현이 나이트클로즈에도 적용되어紳사의 나이트셔츠는 데이셔츠처럼 목과 소매 아래부분을 레이스로 장식하고 손목에 러플을 달았다. 나이트셔츠는 데이셔츠 보다 다소 깊이 파여진 목트임, 편평한 칼라 및 풍성한 소매로 구성되었으나 장식이 없는 칼라와 손목 밴드로써 구성된 단순한 형태도 있었다(그림 4). 나이트셔츠 색상은



<그림 4> Nightclothes, 1669  
(*Medicine*, p.192)

흰색과 검은 색이 이용되었으며 나이트 캡은 나이트셔츠와 동일한 색상이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흰 린넨 나이트셔츠에 금사, 은사 및 붉고 푸른 색사로 수를 놓기도 하였다(그림 5)<sup>18)</sup>. 셔츠의 소



<그림 3> Nightclothes, 1646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p.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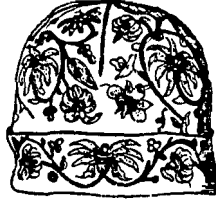
<그림 5> Nightclothes, 1635  
(*Underwear*, p. 19)

15) Cunnington & Beard, 앞의 책, pp.145-147.

16) Yarwood, D.,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Bonanza, 1986, p.300

17) Cumming, V., 廣瀬尚美 譯, 앞의 책, p.41.

18) Ruby, J., *Underwear*, Batsford, 1996, p.19.



<그림 6> Embroidered nightcap, 1600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Seventeenth Century*, p.66)

재는 린넨 외에 타프티(taffety)<sup>19)</sup>도 사용되었다.

바로크 시대에 이용된 나이트 캡은 단순한 형태로서 세탁이 가능하였다<sup>20)</sup>. 나이트 캡은 상부 반이 반구형의 꼭대기를 이루는 네 조각으로 바느질되어 하나로 구성된 둥근 윗부분(그림 4, 6)과 하부 가장자리는 뒤집어져 밀착된 차양을 이루었다<sup>21)</sup>. 나이트 캡은 린넨 외에 벨벳, 견, 브로케이드, 고운 나사 등이 소재로 이용되었고 전체를 자수로 장식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수 장식없이 단순하거나 누비기도 하였다. 그밖에 레이스로 만들거나 검은 견사로 수놓아진 V마크로 장식되거나 뽀족한 형태도 있었다.

17세기에 가발이 유행하게 되자 나이트 캡은 특히 중요한 품목이 되어 오랫동안 이용되었다. 남자들은 가발을 쓰기 위해 머리를 모두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의복을 제대로 차려 입기 전에 타인에게 모습을 보일 경우 나이트 캡은 나이트카운과 함께 필수적인 것이었다<sup>22)</sup>.

17세기 초기에 처음으로 파자마가 도입되어 실내에서 이용되었다. 이것은 색깔 있는 면이나 견을 소재로 한 슈트로써 헐렁하고 단추가 있는 자

켓 형태의 상의와 끈으로 허리볼 묶은 트라우저 형태의 바지로 이루어지며, 인도와 페르시아 디자인으로부터 모방되어져 왔다. 이 패션은 단지 귀족들만 착용되다가 이내 소멸되었다<sup>23)</sup>. 원래 파(pae)는 발 및 다리(foot, leg)를 의미하며, 자마(jamah)는 의복(clothes, garment)을 의미하는 우르드어<sup>24)</sup>로서 고대 페르시아에서 유래되었다. 이 옷은 원래 헐렁한 페르시아식 바지로 아랍과 중동지방에서 낮에 입던 옷이었다.

무더운 여름의 일상적인 저녁모임에서 휴식을 취할 경우 신사는 나이트 캡과 나이트카운 만을 착용하였으며, 이때 나이트카운 속에는 브리치즈를 착용하지 않은 상당히 획기적인 패션을 나타내었다. 신사는 아침에 검은 색의 나이트클로즈를 착용하였다. 바로크 시대에는 신랑, 신부가 각각 상대방의 결혼 잠옷을 준비하는 것이 관습이었다<sup>25)</sup>.

#### 4. 18세기

린넨 나이트셔츠는 러플이 약간 길고 풍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데이 셔츠와 유사하였다(그림 7). 넓고 평평한 턴다운 칼라와 두개의 단추로 된 목부분으로 구성되었다. 목트임은 데이 셔츠보다 길고 커프스가 없었으며 짧은 프릴과 열 트임으로 구성되었다.

나이트클로즈는 종류중에도 보편화되지 않았으며 밤에 나이트 캡 착용 시는 가발을 벗었다<sup>26)</sup>. 17세기에 비하여 풍성한 나이트 캡은 터번과 비슷한 형태였으며(그림 8) 나이트카운과 같은 소재인 모, 다마스커, 벨벳 등이 이용되었다<sup>27)</sup>.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실내 네글리제용으로 착용되었다. 18세기 후기에 나이트카운과 함께 나이트 캡이 착용되었고<sup>28)</sup> 잠자리에서 항상 착용된 나이트

19) Cunnington & Beard, 위의 책, p.276.

원래는 평직의 광택있는 견섬유이며 후에 변화있는 광택을 가진 가는 견 섬유로 됨.

20) Nunn, J., 앞의 책, p.62.

21) Cunnington, W. & P.,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Seventeenth Century*, Faber & Faber, 1970, 70.

22) 알고 입는 옷, 모르고 입는 옷, 신영일, 보스렌자, 1995, p.105.

23) Yarwood, D., 앞의 책, p.300.

24) Urtu, 인도 이슬람 교도들이 사용하는 말

25) Cunnington, W. & P., 앞의 책, 1992, p.43.

26) Boucher, F., *20000 Years of Fashion*, Abrams, 1987, p.313.

27) Nunn, J., 앞의 책, p.82.

28) Cunnington, W. & P., 앞의 책, 1970, pp.239-241.



<그림 7> Night shirt, dressing gown, 1777  
(*The Book of Costume*, p.693)



<그림 8> Night-cap, 1785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Eighteenth Century*, p.240)

트 캡은 린넨이나 옅은 색상으로 자수가 놓여졌다. 이 경우 나이트 캡은 술장식이 없는 험렁한 형태였다. 일반적이지는 않았지만 소모사로 된 나이트 캡은 단지 보온을 위하여 착용되었고 단추가 턱 아래에서 채워졌다.

네글리제인 나이트가운은 근대의 드레싱 가운을 닮은 길고 느슨한 의상으로 앞에서 여며지며 때로는 둘 갈라와 험렁한 소매로 구성되었고 허

리를 띠로 매었다<sup>29)</sup>.

## 5. 19세기

### 1) 1790~1820

나이트클로즈는 특별한 변화를 겪지 않았다. 이것은 길이가 무릎까지 왔으며 앞보다 뒤가 훨씬 길고 앞에 프릴이 장식되었다(그림 9). 예중물로써<sup>30)</sup> 35인치 폭으로 된 린넨 나이트셔츠는 높게 접혀지는 칼라와 한 개의 단추로 구성되었고 나이트 캡은 홀겁이나 이중으로 된 니트를 소재로 한 젤리백(jellybag) 형태였다

### 2) 1821~1840

19세기 초기에 의복을 시간, 장소, 목적에 따라 착용하면서부터 잠옷이나 나이트가운, 바스 로브(bath robe) 등으로 분류되어져서 속옷의 분류에 더해졌다<sup>31)</sup>.



<그림 9> Nightshirt, 1800  
(*Men's Fashion*, Thames & Hudson, p.15)

29) Cunnington, W. & P., 앞의 책, 1970, p.73.

30) Cunnington, W. & P., 앞의 책, 1992, p.107.

Victoria & Albert 박물관에 소장된 은행가 토마스 컷트(Thomas Coutts)의 것.

31) 青木英夫, 下着の流行史, 雄山閣, 1991, p.134.



<그림 10> Dressing gown, 1838~1839  
(*The Book of Costume*, p.856)

나이트셔츠는 편평하게 접혀진 칼라와 목에 단추를 채우며 앞에서 아래로 길게 연장되었다. 나이트캡은 보통 색깔있는 솔로 구성되었다.

드레싱 가운은 1770년대부터 19세기 말엽까지 남성이 사용한 것으로 18세기에는 이 용어가 좀처럼 사용되지 않았다. 이것은 느슨한 소매를 가지고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며 견을 이용하였다. 1850년대에서 1860년대에는 넓은 톨링 칼라를 가지며 새시나 거들로서 허리를 묶었고(그림 10) 솔로 장식된 스텔 캡과 같이 착용하였다. 1850년 말까지 이것은 일상복으로 실내에서 야침용으로 이용되었다가 이후에 침실용이나 욕실용으로도 이용하였다<sup>32)</sup>.

### 3) 1841~1882

이 시기 초기에 나이트셔츠는 작은 턴드 다운 칼라(turned down collar)로 구성되며 발목길이인 나이트카운이 이용되었다. 켈리백 형태인 편면 나이트캡은 보통 유색의 솔로 장식되었고<sup>33)</sup>



<그림 11> Nightshirt, 1876  
(*Wedding Fashions 1862~1912*, p.16)

경우에 따라서는 니트(knit)나 뜨개질이 되기도 하였다. 이후 1857년에서 1866에 걸친 10년 간은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1870년대에는 발목길이인 나이트카운이나 무릎길이의 나이트셔츠(그림 11)가 이용되었으며, 1879년경에 나이트클로즈에 포켓이 도입되었다. 그리고 젊은 층에서는 마침내 나이트-캡을 착용하지 않게 되었다.

### 4) 1883~1896

파자마는 원래 17세기에 귀족들만 잠시 착용하다가 이내 사라졌으나 1880년대에 남성의 잠옷으로서 다시 도입되어 점차 나이트셔츠를 대신하게 되었다<sup>34)</sup>. 1890년경 이래로 파자마는 나이트셔츠를 대신하여 착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모와 견을 소재로 한 줄무늬를 이용하였다. 나이트카운은 발목길이였고(그림 12), 보통 48~50인치 길이인 나이트셔츠는 칼라와 단추로 구성되었으며(그림 14) 머슬린을 많이 이용하였다.

19세기 후반에 등장된 파자마는 남성이 최초로 바지와 상의를 조합하여 침실 전용의 의복으로서 착용하기 시작하였으며<sup>35)</sup> 나이트셔츠 대신 슬리핑 슈트가 이용되었다(그림 13). 그러나 시골사람, 노인, 보수적인 사람들은 20세기까지 나이트

32) Cunnington & Beard, 앞의 책, 1976, p.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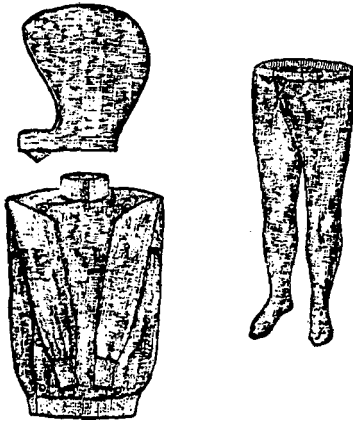
33) Cunnington, W. & P., *The History of Underclothes*, Faber and Faber, 1981, p.91.

34) Yarwood, D., 앞의 책, p.300.

35) 日本ボテイフアツション協會, *Body Fashion Book*, p.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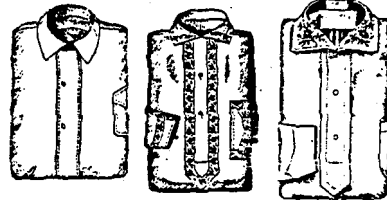
<그림 12> Nightgown, 1880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191)



<그림 13> Sleeping suit, 1885  
(*The History of Underclothes*, p.192)

셔츠를 계속 착용하였다<sup>36)</sup>.

이 당시의 관습은 신랑이 나이트셔츠 차림을 꺼려서 신부가 나이트 카운을 만들어 주기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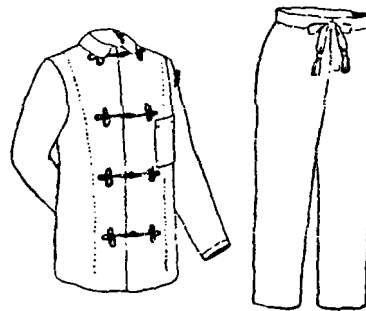
<그림 14> Nightshirts, 1886  
(*Bloomingtondale's Illustrated  
1886 Catalog*, p.64)

였다. 실내에서 일상용으로 편하게 착용되어온 드레스카운은 19세기 말에 침실이나 욕실에서 착용되는 현대적 카운 기능과 연관되어 착용되기 시작하였다<sup>37)</sup>.

## 6. 20세기

### 1) 1897~1908

나이트셔츠를 대신하여 파자마가 일반화되었다. 파자마 소재는 플란넬(flannel)<sup>38)</sup>, 면, 견이 이용되었으며(그림 16), 상의는 단추나 프로그 패스턴(frog fastern: 차이나 버튼, 가슴의 장식끈을 채우는 장식 단추)으로 여몄다(그림 15, 17).



<그림 15> Pyjamas, 1899  
(*History of Underclothes*, p.207)

36) Nunn, J., 앞의 책, p.138.

37) Yarwood, D., 앞의 책, p.302.

38) 패션큰사전편찬위원회, 패션큰사전, 교문사, 1999, p.695.

원래는 방모직풀이나 매로는 위사로 방모사, 경사로 소모사를 사용, 플라노라고도 함.





<그림 16> Pyjamas, striped pure silk, 1902  
(History of Underclothes, p.207)

나이트카운 소재로는 흰 면이나 모 또는 줄무늬가 있는 플란넬트(flannelette)<sup>39)</sup>가 이용되었다.

지금까지 일할 때 착용된 남성복은 남성의 성적 차이점을 나타내었으나 잠자리에서의 원피스형의 나이트블로즈는 남성미를 나타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바지형태인 파자마의 등장으로 남성미를 나타냄으로써 남성의 위엄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곧 이어 여성들이 잠자리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파자마를 착용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파자마에서 가졌던 남성의 위엄은 사라지게 되어, 남성이 새로이 개발한 우월성을 즐기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하였다<sup>40)</sup>.

2) 1909~1918

나이트셔츠 소재는 롱크로스(longcloth; 얇고 가벼운 고급 문명)와 회거나 유색의 견이나 플란넬이었으며 파자마 소재는 플란넬, 비엘라(viyella), 견 등이 이용되었다<sup>41)</sup>. 특히 전쟁으로 인해 모로 된 소재가 많이 요구되었다. 신사의 나이트캡은 자체 색상이나 줄무늬로 된 견을 소재로 하며 침실용으로 이용된 호즈나 삭스는 흰색이나

주홍색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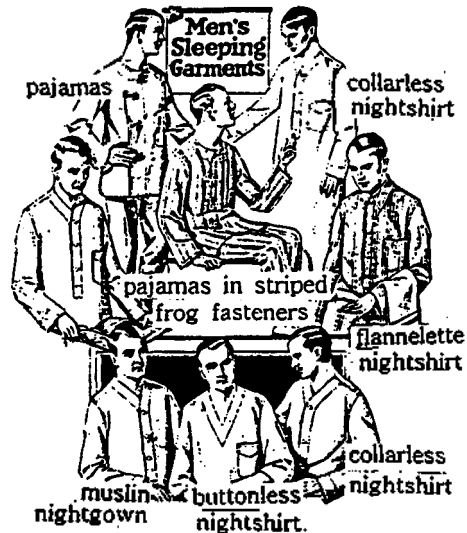
3) 1919~1939

파자마 소재가 훨씬 가벼워지고 견, 인조견, 표면 개질한 면 혼방, 다마스크 패턴, 유색의 디자인 등 다양해졌다. 1930년경에 나이트블로즈는 드레싱 가운을 제외하고 가장 화려한 의복 품목이 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겪으면서 종전에 나이트블로즈가 가지던 일차적 기능에서 이, 삼차적 기능까지 갖추게 되었다.

나이트셔츠는 보통 단추가 부착되고 칼라가 없었으나 단추가 없거나 플란넬을 소재로 한 셔츠에는 칼라가 달리기도 하였으며(그림 17) 1930년대 말까지 나이트카운이 계속 이용되었다.

4) 1940~1950

파자마 소재는 레이온, 포폴린, 흰면, 플란넬, 비엘라, 캐시미어, 견 등 다양하였다. 1948년경에는 독가스 방지용으로 고안된 파자마가 광고되었다. 해군은 파자마를 착용하였으나 다른 군인



<그림 17> Sleeping garments, 1920  
(Everyday Fashions of The Thirties, p.27)

39) Cunnington & Beard, 앞의 책, p.256.

1876년경부터 이용되며 한면이 트월이고 다른 면은 털을 제거한 플러시 표면을 가진 Americca cloth로 만들어지며, 후에 플란넬을 모방하여 면으로 만들어짐.

40) Langner, L., The Importance of Wearing Clothes, Hastings House, 1959, pp.232-233.

41) Cunnington, W. & P., 앞의 책, 1992, p.224.

&lt;표 1&gt; 시기에 따른 나이트클로즈의 종류 및 기능

종류 시기	나이트셔츠	파자마	나이트까운	나이트캡	기 능
중세	· 나체, 데이-셔츠 (특정경우 착용)	-	-	특정 경우	
16세기	· 데이셔츠와 유사한 형 데이셔츠 보다 약간 긴 길이 · 앞트임, 낮은 목선 · 상류층: 자수	-		· 스킵캡형 · 재료, 장식: 신분 상류층: 자수, 검은 벨벳 하류층: 니트 · 적색(보온), 백색 · 환기구멍	신분표시 신체보호 창결유지
17세기	· 목, 소매: 레이스 · 손목: 러플 · 깊은 목트임 · 편평한 칼라 · 풍성한 소매 · 린넨, 타프티, 자수 · 백·흑색	· 초기: 상류층 이용 → 이내 소멸	· 풍성한 코트형 · 앞트임 · 툴칼라 · 긴소매 · 허리띠 · 보온 · 발목길이 · 벨벳, 견, 모, 브로케이드	· 스킵캡형 · 자수 · 린넨, 벨벳, 견, 브로케이드 · 고운나사 · 백·흑색	장식미
18세기	· 긴 러플, 목: 단추 · 넓은 턴다운 칼라 · 손목: 짧은 프릴, 앞트임	-		· 헐렁한 턴번형: 면, 린넨, 자수 · 소모사: 보온 · 턱, 단추	보온: 신체보호
19세기 전기	· 목단추 · 높게 접힌 칼라 · 편평한 턴다운 칼라	-		· 니트(홀, 겹) · 켈리백형: 턱, 끈 · 有色 술장식	
19세기 후기	· 작은 턴다운 칼라 · 칼라, 단추 · 무릎길이, 머슬린	· 파자마 도입 · 모, 견: 줄무늬	· 포켓 · 톱크로스	· 착용감소 · 켈리백형 · 有色 술	남성미 선정적
20세기 전기	· 단추, 칼라: 有, 無 · 톱크로스, 견, 플란넬, 머슬린 · 백색, 유색	· 차이나버튼 · 레이온, 플란넬, 면, 견, 모, 비엘라 경량의 소재 · 흰색, 줄무늬	· 흰 면, 모 · 줄무늬 · 플라넬트	· 줄무늬, 견	선정적

들은 베스트와 팬츠 차림으로 자는 경향이였다. 1949년 후기에 군인들은 추운 기후로부터 적응하기 위해 파자마 길이의 드로워즈가 이용되며, 이것은 뒤에 단추가 있고 양면으로 짜여진 스무

드 니트(interlock) 소재로 된 콤비네이션 형태와 유사하였다<sup>42)</sup>.

이상에서 살펴본 서양 남성의 나이트클로즈의 변화물 시기에 따라 그 종류 및 기능을 분류하면

42) Cunnington, W. & P., 앞의 책, Faber and Faber, 1981, p.164.

<표 1>과 같다.

#### IV. 결 론

서양 남성의 나이트클로즈가 변천해 온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중세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이트클로즈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16세기 이전까지 남성은 잠자리에서 나체나 테이셔츠 차림으로 나이트클로즈는 극히 드물었다.

16세기에 상류층에서 나이트셔츠가 유행되었고 나이트캡이 보편화되었으므로 16세기를 나이트클로즈의 착용 초기로 볼 수 있다. 16세기에 착용된 나이트셔츠는 테이셔츠와 유사한 단순한 형태로서 테이셔츠보다 길고 풍성하며 칼라 없이 낮고 둥근 목선으로 이루어졌다. 겹옷에 적용되었던 신분표시가 나이트클로즈에 그대로 적용되어 재료 및 장식 등으로 신분을 표시하였다.

17세기에 나이트셔츠는 턴다운 칼라로 구성되었고, 장식적 표현미를 중시하던 시대적 배경이 나이트클로즈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러플과 레이스로 장식되었다. 또한 그 당시 가발의 유행으로 머리를 밀었던 남성 모드의 영향이 적용되어 스킵 캡 형태의 나이트캡이 필수 항목으로 된 점으로 보아 다른 겹옷과 마찬가지로 나이트클로즈도 사회적 모드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에는 단추와 풍성한 터번형 나이트캡이 이용되었다.

19세기 중반에는 켈리백 형태의 나이트캡에 술장식이 유행되었으나 19세기 후기부터 나이트캡과 나이트셔츠는 점차 감소하였다. 19세기 후기에 나이트클로즈에 포켓이 도입되어 기능과 실용성을 추구하던 사회적 배경이 나이트클로즈에도 영향을 미쳐 활동에 편리함을 도모하였다. 근세까지 무채색이던 나이트클로즈는 근대에 유채색으로 변화되므로써 염색기술의 발전이 나이트클로즈에도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말에 파자마가 나이트셔츠를 대신하기 시작하여 20세기 전기에 일반화되었다. 파자마의 착용은 형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남성미를 과시하게 되어 나이트클로즈의 혁신적 변화를 가져왔다.

20세기 전기에 파자마 소재는 가볍고 다양해졌

으며, 특히 1930년대에 나이트클로즈는 남성의 의복 품목 중 가장 화려하게 발전되었다.

이상과 같이 나이트클로즈는 다른 의복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남성 속옷이 갖는 기능 중 나이트클로즈는 신체보호, 신분표시, 청결유지, 선정적인 용도 등으로 이용되었으나 의상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기능은 적용되지 않았다. 20세기 전기에 나이트클로즈가 남성복에서 가장 화려한 품목으로 발전되는 변화를 겪으면서 종전에 나이트클로즈가 가지던 일차적 기능에서 이, 삼차적 기능까지 갖는 발전된 면모를 보였다. 파자마는 원래 동양에서 겹옷으로 사용된 것이나 19세기 말에 서양으로 전해져서 속옷의 한 종류인 나이트클로즈가 됨으로서 남성복 역사에서 겹옷이 속옷화되는 일면을 표출하였다. 또한 처음에 남성이 착용하던 파자마를 후에는 여성도 착용함으로써 남성 의복이 여성 의복으로도 적용되어 나이트클로즈에서도 양성화 현상을 나타내었다.

#### 참고문헌

- Blum, S., *Everyday Fashions of The Thirties*, Dover, 27, 1986.
- Boucher, F., *20000 Years of Fashion*, Abrams, 195-313, 1987.
- Brothers, B., *Bloomingdale's Illustrated 1886 Catalog*, Dover, 64, 1988.
- Carmichael, Am G. and Ratzan, Richard M., *Beaux Arts Editions, Medicine*, 192, 1991.
- Carter, A., *Underwear*, B. T. Batsford, 91, 1992.
- Cunnington & Beard, *A Dictionary of English Costume*, A & C Black, 68-256, 1976.
- Cunnington, W. & P., *The History of Underclothes*, Faber and Faber, 27-164, 1981.
- Cunnington, W. & P., *The History of Underclothes*, Dover, 23-262, 1992.
- Cunnington, W. & P.,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Eighteenth Century*, Faber & Faber, 73-241, 1970.
- Cunnington, W. & P., *Handbook of English*

- Costume in the Seventeenth Century*, Faber & Faber, 70, 1971.
- Davenport, M., *The Book of Costume, Volume I, II*, Crown Pub, 84-434, 1948.
- Harvey, J., *Men in Black*, The University of Chicago, 49, 1996.
- Langner, L., *The Importance of Wearing Clothes*, Hastings House, 232-233, 1959.
- Nunn, J., *Fashion in Costume 1200-1980*, Herbert, 9-176, 1990.
- Olian, J., *Wedding Fashions 1862-1912*, "La Mode Illstree", Dover, 16-54, 1994.
- Peacock, J., *Men's Fashion*, Thames & Hudson, 15-21, 1996.
- Ruby, J., *Underwear*, Batsford, 19-37, 1996.
- Yarwood, D.,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Bonanza, 299-302, 1986.
- Cumming, V., 廣瀬尚美 譯, *Exploring Costume History 1500-1900*, 關西衣生活研究會, 24-41, 1991.
- 青木英夫, 下着の流行史, 雄山閣, 134-136, 1991.
- 日本纖維機械學會 纖維工學刊行委員會編, 纖維工學(VI) 最新 纖維製品の製法と性能, 日本纖維機械學會, 119, 1981.
- 日本ボテифアツション協會, Body Fashion Book, 社團法人日本ボテифアツション協會, 115-117.
- 신영일, 알고 입는 옷, 모르고 입는 옷, Volsenza, 105-107, 1995.
- 패션큰사전편찬위원회, 패션큰사전, 교문사, 695, 1999.
- wysiwyg://33/http://business.fortunecity.com/nicholas/550/adj.htm